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7

성모기사

09



9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순교선열들의 신앙과 열정을 본받아 하느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증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세리핌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축일(9월 17일) 구원모	02
성체와 교회 김성학	05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권정대	09
막시밀리안 콜베와 교회 최문기	19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환	23
일치 박영철	27
말씀묵상 최창원	28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Mangalapuzha 신학교 - 김민석	30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44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인 성모님 김병훈	49
방지거, 프란치스코 정영란	52
함께하는 이모저모	57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세라핌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 축일 (9월 17일)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끈땀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상 축일은 1224년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라베르나 산에서 오상(五傷)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성인의 헌신에 주님께서서는 오상으로 보답하셨습니다.

생애의 말년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끔찍한 영적 유혹”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다 학식이 있고 교육을 받은 수사들이, 우골리노 추기경의 중재를 통해, 성인으로 하여금 그의 복음주의와 단순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관구장들이 총장인 엘리아 형제와 함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새 회칙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 봉사자들인데, 그 회칙이 너무나 엄격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쉬운 것도 그들에게는 쉽지 않

습니다!”

성인에게 이런 압력들은 커다란 슬픔이요,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성인은 화가 나서 “내가 수도회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게 반대하는 형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 주장이 교회의 충실한 아들인 그들에게는 광적이며 부적합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 지나친 열성과 하느님께 대한 광적인 사랑으로 초기 동료들 역시 좌절시킨 것은 아니었는가? 또한 글라라의 가난한 자매들의 공동체를 매혹시킨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 아니었는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결국 성인께서는 수도회가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직과 법의 정신을 지지하는 다수 수사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총봉사자의 직책을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인께서 하시던 일, 곧 나병환자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말이 사임이지 수치스럽게 형제회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와 그 동료들이 아닌 프란치스코 성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몸에 승리의 대가인 실패의 표징, 곧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오상을 박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바라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소망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셨으며, 성인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인을 본받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시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성령의 정배라 칭하신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진정 평화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권고 15번)



곤벤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성체와 교회

김성학 사무엘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삶 안에서 성체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의 관련성을 깊이 통찰하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인 교회에 대하여 더 할 수 없는 충성을 바쳤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애정을 그의 성체에 대한 사랑과 관련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일치의 성사

프란치스코가 회개 생활을 시작한 후 어느 날 허물어져 가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다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을 가서 수리 하여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후로 그는 그 성당을 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하느님의 이 명령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교회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가 갑작스레 완전해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2생애 10-11)

그는 이 성당 외에도 성 베드로 성당, 후에 작은 형제회의 요람이 된 포르치운쿨라, 거룩한 동정녀 성당 등 아시시 근교의 많은 성당을 수리하였으며 수시로 이 성당들을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며 청소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동들은 비록 외부적인 교

회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가 모셔져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이 깊어질수록 그는 교회의 내적인 신비, 즉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가톨릭 교회에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톨릭적이고 완전히 사도적인 마음 자세로 살기를 원하였다.(유언 11)

가톨릭 교회는 파스카 신비를 현재에 재현하고 미래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성체를 자주 모시는 것을 권함으로써 신자와 공동체를 이 신비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집회에서 교회의 하느님 백성다운 면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 하느님 예배를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동일한 파스카 빵의 나눔, 동일한 신앙의 고백, 영성체를 통하여 사랑의 일치를 이루므로,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임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체의 각 지체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동등한 신분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직분을 이행함으로써 신비체인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공변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 하느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다음과 같은 품을 받은 사람들, 즉 사제들, 부제들, … 모든 성직자에게 그리고 모든 남녀 수도자에게 … 세상 어디서나 현재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에게” 여러 계층

의 신자들에게 “참된 신앙에 항구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인준받지 않은 회칙 23,7)

이처럼 ‘참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프란치스코 이외에도, 초대 교회의 이상적인 공동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하에 복음적 가난 운동을 주장하면서 교회 권위를 부정하고 성사 특히 성체성사를 인정치 않던 수많은 이단 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이단자는 프란치스코를 멀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프란치스코의 설교 내용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조건 없이 맹목적인 정도의 순종이었으며, 이러한 순종은 곧 교회의 사제들에 대하여도 깊은 존경을 드러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미 성 프란치스코가 성체성사의 집전자로서의 사제들에게 각별한 존경을 드렸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미사의 주례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사제는 그의 대리인이며, 신자들은 공동으로 집전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교회의 모든 성사가 개인 은총의 행위이고 동시에 공동체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모든 신비체와 각 지체들은 다른 모든 은총과 구별되는, 성체성사의 은총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은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가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모시기’ 위해 권고하는 것들에 대해, 모두가 깊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성체성사는 공동체의 제사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이다. 개개인의 영성체까지도 하느님과 교회와 개인의 일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거룩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이 지존한 성사로 적절히 드러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교의헌장 11항)

프란치스코는 성체성사가 작은형제회 공동체의 일치의 끈이 되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전하는 대사제의 기도를 인용하여 모든 신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II 58-60) 영성체(Communio)는 어원적으로 ‘다른 이와 하나가 됨(Unio Cum alio)’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창조물, 모든 좋은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어떤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으려 했다.(형제회에 보내신 편지 29)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는 하느님과 친교의 길을 막는 동시에 다른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도 나눔의 길을 막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체성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체성사를 가까이할수록 타인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발전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동선의 추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끈벱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부산 기장성당 주임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권정대 베드로

제2부 순례하는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어머니

25-37항으로 구성된 “순례하는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주제를 다룬 제2부는 마리아가 순례자로서의 교회 안에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다루고 있다. 제1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계신 마리아와 제2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신 마리아가 연결되고 있으며, 갈라진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일치 또한 함께 거론된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와 마리아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며(1코린 11,26), ‘세상의 박해와 하느님의 위안 속에서 나그넷길을 걷습니다.’”(25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순례하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사막을 헤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고 있다. 이 순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외적으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시대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한 것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면서 신앙의 순례를 앞서가신 분으로 현존한다.(25항) 또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의 어머니로서 그들 가운데에서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3-14)

신앙 안에서 “구원의 주인이신 … 예수”를 바라보던 이들의 첫 무리는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서 잉태와 출산의 순간부터 예수의 신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밝히 드러나고 확인된 그 신비의 유일한 증인임을 알고 있었다.(26항) 따라서 마리아는 구원 역사 속에 깊이 참여하고 교회와 함께 순례의 여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

마리아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나그넷길을 먼저 걸었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당신의 결합을 충실히 견지하였다.(교회현장 58항) 마리아는 분명히 교회의 한 구성원이지만, 마리아의 선행구속 때문에 구세주의 어머니로서나,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삶의 신앙인의 모델로서 정체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 교회의 완전한 실체는 십자가, 부활, 성령의 발출로부터 비롯된다.

교회는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구원의 신비를 간직해 오고 있다. 곧 마리아는 신앙 여정의 승리자로서 교회를 앞서갔고, 지금은 영광 속에서 전 인류를 부르고 있다.

주님 탄생 예고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마리아의 살아있는 신

양은 십자가, 부활, 성령강림에서의 교회의 실제 ‘탄생’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단지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도 선행되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살아있는 신앙이 교회가 이 세상 끝 날까지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하고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리아는 신앙인들이 나그넷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좌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모든 생활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구원의 신비를 간직해오고 있으며, 마리아를 인류의 영적 어머니와 은총의 중재자로 공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정 마리아와 교회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동정 마리아는 빛을 향한 교회의 여정에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5)’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첫 순간부터 교회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보았듯이’ 예수를 통하여 마리아를 ‘보았던’ 것이다. 그때의 교회와 모든 시대의 교회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루카 2,19.51) 나자렛에서 보낸 예수의 유년기와 드러나지 않은 생활을 알고 계신 유일한 증인이라 할 수 있다.”(26항)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을 끊임없이 ‘앞장서 가시는’ 마리아의 신앙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온 인류가 …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성령의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고 힘껏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28항)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나라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25-28항)에서 사도들의 믿음에 앞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성령강림을 통하여 재확인한다. 곧, 마리아는 ‘새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들과 더불어 새로이 맺어질 계약을 앞장서 이끄시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 탄생 예고에서 성령의 정배가 되어 말씀 받을 아들였듯이, 교회의 여명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특별한 존재로서 교회의 신비에 속함으로 교회가 마리아의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것을 재확인하였다.(25항)

또한 이천년을 맞이하는 기간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개인과 교회공동체의 여러 전통에서 그분의 모성적 현존을 드러내며 모든 영적 축복과 인류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내적 공간이 되었다.(27-28항)

교회 일치 관점의 마리아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0-21)”

요한복음에서 전해지는 이 기도는 성자(聖子)께서 수난하시기

직전에 성부(聖父)께 바치신 기도이다. 이 기도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온 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을 추론하게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라 교회는 온 세계에 하나뿐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흩어진 모든 신자가 성령 안에서 결합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특히 오늘날, 순례하는 교회의 이러한 깨달음은 교회 일치의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이룩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대해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분명한 모범으로 보여준 “순종하는 믿음”을 자신과 각자의 공동체 안에 깊이 새겨야 함을 제시한다.(29항)

서방의 갈라진 교회와 가톨릭교회 사이에는 마리아의 역할에 관한 교리의 가볍지 않은 차이가 있다.(일치교령 20항) 교회의 신비와 사명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역할 등에 대한 차이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 갈라진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가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로 인정하며, 이 사실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요소들에서 가톨릭교회와 합일점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표지이다.(30항) 마리아는 하느님의 옛 백성과 새 백성을,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를, 유대교회당과 교회를, 서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로 묶

어주고 있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지속해온 교회 일치 운동 규칙의 정당함이 다시 한 번 입증된다. 각 교파는 교세를 확장하기보다 우선 그들의 같은 믿음의 깊이를 추구해야한다. 이 믿음의 깊이가 다른 교파들이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하느님 어머니의 신비를 엿볼 수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하느님 어머니에 대한 묵상이 육화의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와 똑같은 원리가 교회의 신비와 구원 활동에서 마리아의 역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30항) 교황은 마리아를 본받음이 오히려 교회 일치에 도움이 되는 요소임을 역설하며,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및 오래된 동방의 교회들이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에 대한 사랑과 찬미를 통하여 얼마나 깊이 결합해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31항)

교회가 인류를 성령 안에서의 일치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계로 모으려 애쓰는 것처럼 하느님의 어머니가 교회와 맺는 관계도 동일하다. 마리아는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시이기 때문에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 일치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교회를 위한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은 아직도 갈라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한 교회로 일치되도록 비는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여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29-34항)는

순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리아가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 빛나는 분임을 전제로 하고, 일치를 위해 서구교회들과는 교회의 신비와 직무, 마리아의 역할에 관한 교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29항), 정교회와 오랜 동방교회들과는 공유하는 전통과 역사를 기억하고 천주의 모친(Theotokos)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를 위해(31항)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화를 통해서 동방교회의 풍부한 성모신심이 전례와 성화 안에 담긴 것을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다양한 교회의 전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32항)

순례하는 교회의 ‘마니피캣’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루카 1,46-55)

제2부는 ‘순례하는 교회의 마니피캣’이라는 주제로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신 마리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들어서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자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 전 존재의 영적, 시적 찬미를 표현한 것이다.

마리아의 노래에 담긴 계시를 통하여 실제로, “하느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중개자이신 동시에 모든 계시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다.” 또한 마리아는 찬미가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 한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자신 안에 구원 섭리 전체가 집중된다. 이 구원 경륜 안에서 ‘대대로’ 계약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닫게 된다.(36항)

‘마니피캣(Magnificat)’으로 모든 세대가 마리아의 믿음을 찬미하고,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북돋아지기를 청한다.” 또한 처음부터 하느님의 어머니의 여정을 본받아 자신

의 지상 나그넷길을 가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 노래를 되풀이한다.(37항)

‘마니피캇’에 표현된 진리는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보여준 사랑, 곧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 교회는 시대와 시대를 넘어 마리아와 함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불러왔다.

회칙은 ‘마니피캇’으로 가난한 이들을 우선시하는 사랑을 제시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들며,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성을 교도한다. 마리아는 주님의 가난한 이들 가운데 뛰어나게 드러나 있는 가난한 여인이다.

이 가난한 여인을 하느님이 당신의 궁궐로 삼게 되신 성경의 경륜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되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보증과 승리의 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나그넷길을 가면서 가난한 여인의 노래인 마니피캇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칙은 순례하는 교회의 ‘마니피캇’(35-37항)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일치를 재발견하고 아브라함의 전통이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성취된 것과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한다.

또한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여정에 현존하는 마리아와 함께 마니피캇(마리아의 노래)을 부르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우선적 사랑이 하느님의 우선적 사랑에 따른 것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37항) 이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모습으로 찬미하는 마리아에게서 교회의 전형이며,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부제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막시밀리안 콜베와 교회

최문기 마티아

본질과 존재에 대한 질문과 성찰은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고통과 혼란의 시기에 더욱 진지하게 던져지고 이루어진다. 그런 까닭에, 인간 역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의 성장과 성숙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사 안에도 한결같이 발견되는데,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의심받은 적이 없었던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과 성찰이 인간 역사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 심각하게 던져진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콜베 신부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대에 태어났고 활동하였다. 그 시기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과학과 인문학적 발전이 비약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과학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정점으로 이끌었다. 과학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실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는 과거 신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던 영역들조차 하나씩 무너뜨렸고, 인간 이성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설명하고 풀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신의 자리를 과학과 인간 이성이 차지한 이 시대에도 ‘종교와 교회’는 필요한가. 과연 종교는 무

었이며 교회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외적이고 교회 파괴적인 공격은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신앙인들에 의해서 던져진 진지하고도 엄숙한 성찰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사실 당시 교회의 위기는 교회 밖에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이고 거룩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유일성과 교황의 수위권은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개신교회 사이에 풀리지 않는 논쟁의 주제였으며, 특히 1870년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무류권”에 대한 선포는 (이미 교회의 전통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어온 유서 깊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콜베 신부는 1921년 한 편지에서 한 개신교 목사와의 논쟁에 대해 언급한다. 편지에는 논쟁의 주제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으나, 그가 마태오 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를 인용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교회와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콜베 신부는 로마 유학 시절 교회와 교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교도권에 대한 커다란 신뢰와 수호의 의지를 굳건히 세운다. 그는 1913년 로마에서 열린 한 피정의 묵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 사도를 가시적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상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사도와 그의 후계자들, 그리고 교회가 영적,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이는 곧 결점이 없는 현실을 입증하는 교회의 영적 권위에 입각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에 대한 재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는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을 규정하면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린 그 과정에서 콜베 신부는 베드로 사도가 가진 믿음에 주목하지 않으며, 그 대신 그가 받았던 ‘부르심’에 주목한다. 관념적인 도덕보다는 믿음으로의 부르심과 개인적인 선교 사명에 주목한 것이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정한 인물이다. 콜베 신부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자신 앞에 닥쳐오는 위험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인간 베드로의 안에서는 어떠한 영적 도덕적 능력이나 권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는다.

따라서 진리의 기둥으로서 교회는 베드로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독점적 권한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수의 부르심에 의해서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사도단 전체에 공식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베드로에게만 독점적으로 전달되었으며, 그에게는 교회의 머리이자 예수의 지상 대리자로서 역할이 명백하게 부여된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

교회는 다른 여러 돌들 위에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단순히 제도적 교회의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본성은 ‘일치’이며, 이 본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분열 근원에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다. 콜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도의 직접적인 연결을 교황 안에서 발견하며, 교회와 교황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이끄심이 간접적이고 상징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감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와 교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교황은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오류가 없다. 그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교회의 사목자로서 수위권을 가지고 신앙과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확증하여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계시된 진리이거나, 혹은 계시된 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부관구장, 신학원장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한 스테파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2주년을 맞아 회칙의 가르침과 정신이 가톨릭 교회와 세상 안에 더욱 널리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의 사무총장 토마스 인수아(Tomás Insua)의 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BRINGING LAUDATO SI’ TO LIFE)”을 소개합니다. ¹.

영성의 차원에서 <찬미받으소서>를 생활화하기(2)

가톨릭 교회 안에서 ‘피조물을 위한 기간(The Season of Creation)’의 거행은 2015년에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이 필리핀 회원들의 제안에 의해 이 계획을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퍼졌으며, 2016년에는 국제가톨릭기후운동이 에큐메니컬 공동 환경 캠페인에 착수하기 위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교황과 함께하는 기도회(Pope’s Worldwide Prayer Network),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들과 협력하면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크라코프에서는 3백만명의 세계청년대회 순례자들에게 피조

^{주1)} <http://catholicclimatemovement.global/>

물 보호를 지향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권고 동영상도 소개되었고, 이에 더해 다른 혁신적인 계획들이 ‘피조물을 위한 기간’ 웹사이트에서 실행되었습니다.²

몇 가지 예를 들면, 피조물 보호를 위해 다른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열렸고, 피조물 보호에 관한 묵상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매주간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며, 약 300개의 지역 기도 모임들이 모든 대륙에서 조직되었습니다.

만약 한 국가 혹은 대륙의 다른 주교회의들도 피조물을 위한 이 특별한 시간을 촉진하기 위해 필리핀, 유럽의 주교회의들과 뜻을 같이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공동체가 더 큰 규모로, 더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필리핀과 유럽 교회들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피조물을 위한 기간’의 거행은 아름다운 교회 일치적 거행이었지만, 이 특별한 시기가 시급하게 필요한 생태적 회개의 실천을 가톨릭 신자들에게 촉구하는 데에 더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의 담화문 “우리 공동의 집에 자비를 보여주기

주2) SeasonOfCreation.org

(Show Mercy to Our Common Home)”³에 나타난 ‘피조물을 위한 기간’의 거행에 대한 찬사에 근거해서 교황님께서 이 한 달 간의 거행을 준수하는 데에 모든 가톨릭 공동체를 초대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2008년 피조물을 위한 이 특별할 시기를 제정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 중대한 때에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더 강한 참여를 촉진하면서, 우리를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와 더 가까이 일치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함께 걸어 나가는 그 길의 깃발이 될 수 있게”⁴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경의 첫 조항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골롬반회의 찰스 루 신부님이 제안한 피조물을 위한 전례 시기의 거행이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전례가 이미 창조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례 예식 안에 나타난 창조 테마에 관한 신앙인의 인식은 매우 부족합니다.

〈찬미받으소서〉의 반포라는 새로운 경험은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찬미받으소서〉 116항)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요구되는 규모와 속도

주3)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우리의 공동의 집에 자비를 보여주기” (2016년 9월 1일).

주4)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 (2015년 8월 6일).

로 우리가 깊은 생태적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면, 이 새로운 전례 시기는 우리가 더 빠르고 간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분명히 도울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전례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탐구하고 고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례 안에 이미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창조 테마를 신앙인들에게 가르치는 데 힘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회의 마이클 알리아도 신부님이 하셨듯이, 피조물 보호가 주일미사 전례에 통합되도록, 곧 〈찬미받으소서〉의 주제들이 강론과 신자들의 기도, 본당 공동체의 게시물에서도 다뤄지도록 설교자들과 전례 계획자들을 돕기 위한 매우 유익한 노력이 이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본당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찬미받으소서〉 216항)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방안들은 더 널리 장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계속)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호주가톨릭대학교에서 생태신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일 치

박영철 요셉

고요함이 깔린 호롱불 밑,
님은 외로이 홀로 서 있다.
다시 올 수 없는 시간
마냥님을 바라다본다.

님이 그리워
어둠을 젖히고 빛을 찾아
님께로, 님께로.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마냥님을 품에 안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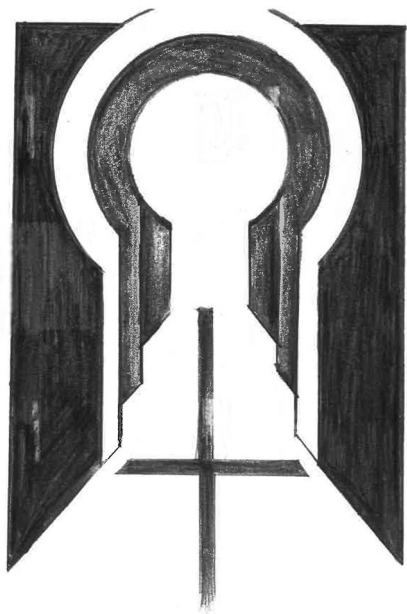
거대한 폭풍도
암흑 속의 적막함도,
일치를 이루는 숭고함 앞에
무릎을 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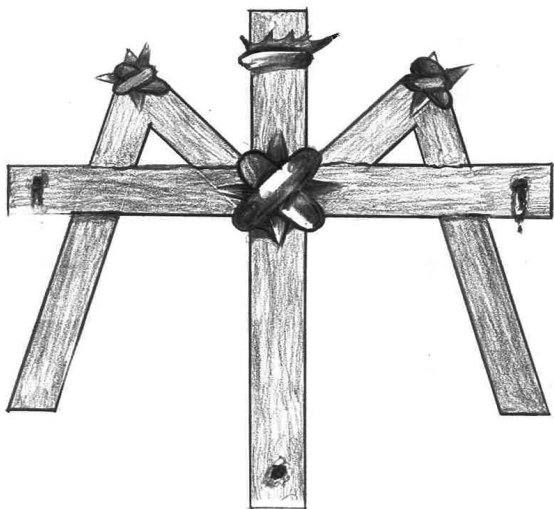
한 줄기 빛, 한 줄기 향기,
난 다시 이 시간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님의 얼굴 아로새긴 채
나의 자리로 발길을 옮긴다.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보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드님이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영성체송)





“동정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복음환호송)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Mangalapuzha 신학교 -

김민석 안젤로

“Kim! 패스! 패스!”

“Kim! 3점 슛! 3점 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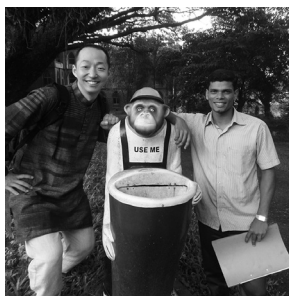
10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선수로 들어가 얼떨결에 3점 슛 하나를 성공시켜버렸고, 그 때문에 반 친구들은 한번 이겨보자고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3점 슛을 계속 던지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 농구 게임을 이렇게 심장 터질 만큼 열심히 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 후 연이어 두 개의 3점 슛을 성공시켰지만 우리 팀은 지고 말았고, 아쉬운 마음으로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농구경기가 끝난 후 가쁜 숨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인도 신학교 생활은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그날 8월 12일 신학교 축제(Pontifical Institute Day)도 우리 반의 아쉬운 패배와 함께 저물어 가고 있었다.



내 생일날 신학교 마당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있다. Abi 형제는 내 생일 몇 주 전부터 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나는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뭐 하나는 말해달라고 한다. ‘돈도 들지 않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Abi! 널 닮은 쓰레기통이랑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Mangalapuzha 신학교 마당에는 여러 가지 동물 모양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중 Abi와 닮아서 자주 놀렸던 쓰레기통이 있다. 그것은 원숭이 모양 쓰레기통이었는데, 등·하굣길에 자주 그 쓰레기통 앞에서 “Abi! 여기서 뭐 하니?”하며 장난을 쳤었다.

Abi는 장난스레 스쳐지나간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었다. 내 생일날 학교에 카메라를 들고 와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다. 그 사진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크게 현상해서 코팅까지 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사



진을 보고 있노라면 그 짧고도 강렬했던 인도 신학교에서의 한 학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항상 날 배려해주고 도와주었던 Abi 형제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진다.

신학교

콜베 수도원 형제들은 수도원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Mangalapuzha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Alfred 원장신부님의 권유로 나에게도 한 학기 동안 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드디어 인도 신학교 첫 학기가 시작되었다. 콜베 수도원 형제들은 분주하게 새 학기를 준비하였고, 모두 들뜬 마음으로 개강 미사를 기다렸다. 한국과는 다르게 인도의 첫 학기는 6월 초에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끝난다. 그래서 그런지 꼭 1학기가 2학기처럼 느껴졌다.

콜베 신학원에 Alfred 신부님 후임으로 오신 Michael 신부님께서는 개강 열흘 전 나에게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두 가지 선택해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고민 끝에 ‘현대 교회사’와 ‘바오로 서간’을 듣기로 했다. 두 과목 모두 대학원 1학년 수업으로 그 반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신학생은 나 밖에 없었다.

개강 미사

며칠 후 6월 3일 개강 미사에서 수많은 신학생에게 압도되었

다. 어림잡아 400명은 넘어 보이는 인도 신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100명 채 안 되는 한국 신학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성전이 학생들로 가득차 있는 모습과 미사 전에 미리 와서 침묵 중에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인상 깊게 다가왔다. 이렇게 젊고 혈기왕성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뒤로한 채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하느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미사 후에 각 학년별로 교실에 모여 전달사항을 들었고, 반 친구들과 정식으로 대면할 수 있었다. 내가 속한 대학원 1학년은 총 66명으로 그 중 수도회 소속 신학생이 10명, 수녀님이 2명이었다. 전달사항이 끝나자 모두들 앞 다투어 나에게 악수를 걸어오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거의 모든 친구와 악수 인사를 나누고, 나와 한국에 관한 이런저런 궁금점에 대해 대답해주다 보니 한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다. ‘이 많은 학생의 이름을 이번 학기동안 다 외울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Kim! Kim! 하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친구들은 벌써 내 이름을 다 외운 것 같다. 예상치 못한 나의 등장에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그저 반가워서 싱글벙글 미소 짓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첫 수업

신학교 개강을 하면서 Michael 원장 신부님께서는 나에게 인도관구 수도복(회색)을 맞추어 주셨다. 아무래도 나만 검은색

수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해 보이셨나 보다. 인도 수도복을 입으니 훨씬 시원했고 더욱더 인도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형제들도 “이제 정식으로 수도복을 받았으니 한국에 가지 말고 여기서 평생 살아”하며 농담을 걸어왔다.

첫 수업 날, 많은 학생들로 뻥뻥하게 찬 교실에는 빈자리가 맨 뒷줄에 몇 개와 제일 앞줄에 한자리 밖에 없었다. 나는 당연히 맨 앞줄을 택했다. 맨 뒷줄에 앉으면 웬지 철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고, 원래 한국 신학교에서도 늘 교실 앞자리를 선호했다. 결정적으로 한 학생이 맨 앞줄에서 자기 옆에 와 앉으라고 격렬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 이름은 Sony였는데, 알고 보니 그가 우리 반 반장이었다.

현대 교회사 수업

‘현대 교회사’ 수업은 매 시간마다 정해진 학생이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요약해서 약 3분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Alby는 학기 초부터 교수신부님께 “Kim 한번 시켜보세요! Kim 한번 시켜보세요!”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학기 중반쯤 되었을 때 신부님께서는 “다음 주 발표는 Kim!” 이라고 말씀하셨고, Alby는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Yes!”를 연발했다. 하지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문장은 이것이었다. “다음 주 발표는 Kim 바로 뒷줄에 앉아있는 Alby!”

그날 교실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고, Alby는 아주 능청스런 얼굴로 뒤에서 내 등을 쿡쿡 찌르며 말했다. “Kim, 두고 보자! 널 꼭 발표시키고 말 테다.” Alby 덕분인지 신부님께서는 나에게도 과제 하나를 주셨다. 한국 교회사 내용 중 주제 하나를 선정하여 학기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발표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했는데, 떠들떠들 어설픈 영어에도 불구하고 다들 진지하게 경청해주었다.

바오로 서간 수업

‘바오로 서간’ 수업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웠고, 특히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불러주실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받아 적기가 매우 힘들었다. 어떨 때는 수업이 숫자 받아쓰기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다. 또한 기억 저편에서 사라져버린 히브리어, 희랍어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던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생토록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할 ‘성경’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을 이곳 인도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수련기(Pre-Novitiate House) 공동체 방문 ... 인도의 바다

8월 13일~16일까지 3박 4일간 특별히 전-수련기 공동체를 방문했다. 콜베수도원과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전-수련기 공

동체에는 Regite 신부님이 원장님으로, Peter 신부님이 부원장님으로 계셨다. 한국 관구와는 달리 인도관구에는 수련기에 들어가기 전에 1년간 준비하는 전-수련기 과정이 있는데, 보통 이 기간에는 수련기를 준비함과 동시에 영어공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련 이후 입학하게 될 인도 대신학원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Peter 신부님께서 나의 방문 기념으로 전-수련기 모든 형제와 함께 케랄라 주의 유명한 바닷가, 체라이 해수욕장(Cherai Beach)에 데리고 가주셨다. 인도 바다는 뭐랄까? 아주 인도(?)스럽게 아름다웠다. 약간 검은 빛이 나는 바닷물과 강한 파도, 그리고 수영을 하다 보면 자주 팔에 걸리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비닐봉지 ... 하지만 인도 바다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는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마저도 분위기 있어 보이게 했다.

저녁이 되어 조금씩 어둑해지자 우리는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묵주기도를 바쳤다. Regite 신부님께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신비를 한국어로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그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어로 말할 수 있었다. 파도소리와 함께 한국어로 울려 퍼지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은 많은 감정을 교차하게 했다. 한국에 대한 향수도 있었지만 지금 내가 와 있는 이곳 인도와 인도관구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정말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다섯 번째 신비가 끝났다.

목주기도가 끝나자 묘한 울림들로 요동치는 인도 바다소리가 내 귓가에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매우 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바다가 모두 이야기 해주고 있는 듯, 우리는 한동안 그 소리에 취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 형제의 흥얼거림으로 시작된 노래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면서 한국씩 노래를 불렀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문득 머릿속에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서 불렀다. 인도 형제들은 한국어 발음이 참 아름답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인도어보다도 영어보다도 우리말이 참 단아하고 아름다운 것 같다.

인간을 한없이 솔직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대자연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자신과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먼 나라 인도에 와서 겪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 재미있고 소중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간다. 이 은은하고도 깊은 대화를 뒤로한 채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수도원으로 향했다.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타고 갔던 승합차(크기는 우리나라 소형차만 하다)가 두 번이나 펑크가 났다. 바닷가에서 출발할 때 한 번, 그리고 수도원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서 한 번. 첫 번째 펑크는 트렁크에 있던 비상 타이어로 해결했지만, 두 번째 펑크는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인도는 상황이 달랐다. 길 가 한쪽에 차를 대놓고 무작정 수리공을 기다렸는데,

길가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모두 잠이 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기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모든 것이 아주 여유롭다. 잠에서 깨어보니 수리공은 열심히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고, 그날 우리는 새벽 한 시가 넘어서야 수도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날 있었던 일들은 모두 꿈만같이 느껴졌다.

콜베 성인 축일과 인도의 독립기념일

8월 14일은 콜베 성인 축일이고 15일은 인도의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당을 인도 국기와 여러 가지 인도 상징물들로 꾸몄다. 수도원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네 본당 신부님들을 초청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인도의 독립과 관련된 연설과 콜베 성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전-수련기 형제들의 끼가 넘치는 무대로 마무리 되었다. 많은 형제가 평소에 갖고 닦은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을 손님 신부님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당시 인도에서는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뒤늦게 유행하고 있어서 인도 형제들이 나에게 그 춤을 요청하는 바람에 눈 딱 감고 한번 취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청원 시절, 양평 수도원에서 콜베의 밤 때 선배 수사님들과 함께 추었던 ‘강남스타일’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 춤을 인도에 와서까지 추게 될 줄이야!

인도에 와서 느낀 것은 교구와 수도회 간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다는 것이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서로 초대하고 참석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해나간다. 수도회 부제들이 매 주일마다 동네 본당에 가서 사목실습을 하면서 본당 신부님과 형 동생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은 훈훈한 형제애를 느끼게 한다. “한마음 한뜻!”(사도 4,32)” 주님 안에서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생일

다시 콜베 수도원으로 돌아온 후 며칠 뒤, 나는 생일(8월 19일)을 맞이했다.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명축일보다도 생일을 축하한다. 한 형제가 생일을 맞이하면 미사 후 아침식사 자리에서 모든 형제가 줄지어 나와서 생일자 형제를 끌어안으며 축하해 주었는데, 이 날 나도 그 축하를 받을 수 있었다. Michael 원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차례차례 나와 축하해 주는 형제들 한명 한명의 눈동자를 마주 보면서 깊은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Jidin 형제가 대수도원 정원의 프란치스코 성인 상 옆에 피어있던 예쁜 노란색 꽃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화분을 만들어 오랫동안 내 방 안에 두고 보았다.

콜베 수도원에는 생일을 맞이하는 형제가 그날 저녁식사 시간에 형제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다. 나는 무엇을 살지 고민하다가 한국인의 정(情), 초코파이로 정했

다. 인도에서 한국 초코파이가 아주 인기였고, 그 공장이 케랄라 주에도 있어서 수도원 근처 가게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기

9월에 들어서면 인도의 우기가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 누군가 바가지로 물을 퍼붓는 듯한 굵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폭포 같은 소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새벽에 짹짹 새 없이 몰아치는 천둥·번개는 9월 초 동안 거의 잠을 못 이루게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팡! 팡!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는 콜베 수도원 같은 대수도원의 웅장한 건물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린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이 굵은 빗줄기와 밤새도록 이어지는 천둥소리를 들어보면 실감할 수 있다.

못자리

언젠가 본당 체험을 갔을 때 주임 신부님께서 케랄라 주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졌던 터에 나를 데려가신 적이 있다. 바쁜 본당 사목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온 내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 날 우리가 도착한 곳은 Vaipikkotta 신학교 터였다. 이 신학교는 16세기 후반에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지금은 인도 정부의 고고학 관련 부서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지금 그 터 위에는 옛 신학교 건물의 벽

면 몇 개만이 굵은 밧줄로 지탱되어 쓸쓸히 서 있는데, 그 벽들은 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그 앞에 서서 당시 인도 신학생들을 상상해본다. 이 신학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인도 신학교들도 없었으리라.

순간 가슴이 울컥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신학을 배우고 사제직을 준비했던 곳, 그 혼과 숨결을 느꼈기 때문일까? 신앙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여행을 떠났던 많은 선교사의 이야기, 교회사 시간에 말로만 들었던 여정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외국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선교’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학교 터는 내게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그리고 그 준비를 우리들의 못자리인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신학교를 ‘못자리’라고 하는 이유는 신학교를 지칭하는 라틴어 Seminarium이 ‘씨앗’을 뜻하는 단어 Semen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법씨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판(못자리)처럼 우리 성소의 씨앗을 키워주고 주님의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시켜 주는 곳이 바로 신학교인 것이다. 성소 못자리인 신학교가 세계 곳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많은 선교사가 흘린 피와 땀의 희생 덕분일 것이다.

내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못자리는 어디일까? 한국 신학교도 아니고 인도 신학교도 아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교

가 아닐까? 사제를 양성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모두 남아있으니 말이다.

작은 형제들의 거처가 리보토르토에서 포르치온쿨라로 옮겨진 후, 기도 책이 없어 성무일도를 노래로 할 수 없었던 형제들이 프란치스코 성인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송하며 찬양하나이다.”

프란치스코인들이 기도의 처음과 끝에 바치는 성 프란치스코의 찬미송(Adoramus te)은 교회에 대한 크나큰 신앙심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의 교회에 대한 신앙심은 사제에 대한 큰 신뢰심으로 이어진다.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소의 씨앗과 그것을 길러낼 못자리인 신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께서 선교적 열정에 북받쳐 수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떠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인께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교회에 대한 신앙심과 사제에 대한 신뢰심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수도자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제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이 곳 인도 신학교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사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교회’와 ‘사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 이름 세 글자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새기고 알리는 수도자, 성직자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다윗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매일 같은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 멜버른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 경험이 멜버른 대교구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먼저 인정합니다.)

사제로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주례사제를 포함한 모든 사제가 제의를 잘 갖춰 입고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성당에서 많은 사제가 제의를 잘 갖춰 입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모든 사제가 잘 지키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례사제들도) 장백의에 영대만 걸치고 미사하는 신부님들을 자주 보아서 그런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유축성미사 때나 사제서품식 때, 200명이 넘는 사제들이 모두 모이지만 주교좌 성당에는 그들이 입을 제의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복미사를 위해서 방한하셨을 때, 특별제의를 제작해서 모든 사제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든 사제가 같은 제의를 입고 미사를 집전했던 좋

은 추억이 있습니다. 잘 갖춰진 복장을 한 우리나라의 모든 사제가 한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으면 합니다.

멜버른에 도착해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주일미사 전례서와 평일미사 전례서였습니다. 저 책 두 권만 있으면 따로 매일미사를 매달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한인성당 신자들은 한국에서 ‘매일미사’를 일 년치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값보다 배송료가 더 비싸서 문제였지요. 다행히 최근에는 제 출신 본당인 ‘효자동 성당’에서 ‘미사전례독서’라는 한 권으로 된 미사독서집을 받아서 유용하게 신자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이 너무 크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뭐든 작고 가벼우면 비싸지고, 크고 무거우면 싸지는 법이지요.

한편 왜 평일미사용, 주일미사용을 따로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일미사만 봉헌하는 신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평일미사를 안 보는데 책을 더 무겁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만든다면, 평일과 주일을 따로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여기 멜버른 대교구에는 비정규성체분배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제수가 부족해서 본당마다 많은 수의 비정규성체분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미사 때 복사의 역할도 하고 성체분배와 환자봉성체도 도와줍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더욱 자주 성체를 영하고 주님의 은총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환자봉성체를 합니다. 물론 사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도 바쁜 일정이지만 좀 더 많은 수의 성체분배봉사자가 있다면 많은 환자가 성체성사의 은총 속에서 본당공동체와 일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점을 이야기했으니 아쉬운 점도 이야기해야겠죠. 여기서 미사를 준비할 때, 가장 그리운 사람들은 한국의 친절한 제대봉사자들입니다. 한국에서 매주 깨끗하게 세탁된 향기나는 장백의를 입으며 행복해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글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제대회원님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결하고 잘 정돈된 제의방은 봉사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 8시에 주일미사를 봉헌했을 때, CD에서 입당성가가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악기 하나쯤은 다들 기본 소양으로 교육받는 줄 알아서 성가반주 봉사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봉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그것도 주일미사 참례자가 2,000명이 넘는 큰 본당에서요. 상황이 이러니 규모가 작은 본당에서는 반주자 구하기가 더 어렵겠죠.

CD에서 성가가 나오니 신자들의 호응도 별로 없어서 미사를 집전하는 내내 신경이 쓰이곤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CD 성가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충실하게 잘 지급되고 있더군요. 역시 벌금이 썬 곳에서는 법을 잘 지키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신부님이 미사 시작 성가곡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집전도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미사전례 봉사자가 줄어들다 보면 여기서 그렇게 되어 버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한국도 교회가 노령화가 되어가는데, 여기는 이미 노령화가 많이 되어 버려서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교육도 더 잘 받고, 재능도 더 많아서 미사 안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고 전례에 깊이 참여한다면 미사가 더욱 풍요로워질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 또 불편한 점은 유아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미사, 중고등부 미사, 청년미사 구분이 따로 없고 가족 단위로 미사참례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부모님 곁에서 미사를 보게 되어서 좋지만 아이들이 너무 소란할 때가 있어서 조용한 마음으로 미사 봉헌하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미사를 참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권장되는 일이지만 반대로 부모가 미사참례가 어려울 때는 자녀들도 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성당에 오는 것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마음 편하게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보다 안전한 치안 속에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몇 가지 다른 점을 살펴봤는데요. 누구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에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좋다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식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상황에 따라 알맞게 적용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사목한다면 몇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달은 멜버른 한인공동체가 첫 미사를 봉헌한 지 40주년 되는 달입니다. 성모님의 보호 아래서 맞게 되는 40주년을 기념하면서 4만단의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멜버른 한인공동체 기억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곶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호주 멜버른 한인성당 주임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인 성모님

김병훈 세례자요한

저에게도 사회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어떤 자매가 저에게 “세례자요한 형제님은 이상형이 누구예요?”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성모님 같은 분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의 두 눈이 뚫그래지더니 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제가 한 말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 이상형은 성모님 같은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 말에 대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한아!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안 계실 것이다”, 성모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나 같은 여인은 이 세상에 다시없을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눈이 높다 못해 하늘을 찔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수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에서는 제 이상형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모 신심이 각별한 끈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평생 성모님 곁에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성모님께서 저의 이상형으로 다가오셨지만 언제부

터인가 성모님께서는 제 어머니로 다가 오셨습니다. 수도원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 아기들은 엄마 곁에서 잠을 잡니다.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천상 엄마인 성모님 품에서 잘게요.”

성모님을 제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내어 주지 않으셨더라면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부를 때 호칭이 많습니다. 그 많은 호칭 중에서 “어머니” 또는 “엄마”라고 부를 때 성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생활의 전부로 삼는 데에 성모님만큼 훌륭한 모범이 되신 분은 없고 성모님만큼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모님을 본받아, 성모님의 도움과 전구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모님은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한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어린아이 혼자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차를 잘못 타거나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유괴범들에게 납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간다면 어떨까요. 엄마는 아이를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아빠에게 데려다줄 것입니다. 이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가듯 우리 또한 영적인 어머니인 성모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다가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묵주기도가 아닐까요? 묵주는 성모님의 허리띠와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 띠를 자주 만지며 어머니께 속삭이길 좋아하십니다.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성모님! 성모님과 저희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는 한 저희는 안전합니다. 항상 저희를 성모님의 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방지거, 프란치스코

정영란 마리아네스

교회 안팎으로 인종과 종교를 넘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성인 프란치스코.

이 귀한 이름을 처음 접한 때가, 그 이름이 풍기는 향기만이라도 처음 느낀 것은 과연 언제였을까? 종잡을 수 없는 기억을 더듬어 본다. 문득 어떤 직관적 확신과 함께 생각이 선친의 옛 수필집에 가 닿는다. 책장에 고이 모셔져 있던 『수평선』과 『흙 묻은 손』을 펼쳐본다. “이렇게 일체가 변환 무상한 가운데, 오히려 영구히 변치 않을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게 무엇인가? 그게 이른 바 사랑이라는 게 아닐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석가의 사랑이, 프란치스코의 사랑이 온 우주의 하늘에 별을 뿌려 놓지 않았나!” 정년퇴임을 앞둔 내가 태어나기도 전, 막 마흔에 접어드신 젊은 날의 선친은 1954년 여름에 쓰신 한 수필에서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드높이 기리셨구나! 예수님과 석가와 한 자리에! 새삼 십여 년 전 타계하신 부친의 모습, 늘 정원을 돌보며 사시면서 마루에 걸린 한문 액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풀이해주셔서 아예 조무래기 때부터 우리 기억과 삶의 자세에 박아주셨던 당신 음성이 그리움 속에 피어오른다.

不足之足每有餘 足而不足常不足

부족지족매유여 족이부족상부족,

부족한 가운데도 만족하면 늘 여유가 있고
족하면서도 부족하다 하면 늘 부족하기 마련이란다...

개신교 미션 스쿨에서 평생 봉직하시면서 유교적 청빈이자 복음적 가난을 일치된 가치로 추구하며 지극한 애정으로 나무와 꽃을 가꾸며 하시던 선친의 모습에서 나는 나중에 방지거라는 알쏭달쏭한 한자 이름으로도 접하게 된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우라를 어릴 때부터 느낀 게 아닐까 싶다.



프란치스코, 아가를 품에 안게 된 엄마가 애초에 주었던 조반니, 요한이라는 원 이름 대신 사업 차 당시 ‘교회의 말팔’로 자랑스레 불리던 프랑스, 그것도 우아한 궁정풍 사랑의 노래가 읊조려지던 축복 받은 12세기의 남 프랑스 프로방스 고장으로 늘 오가던 부친에 의해서 다시 받은 이름. ‘프랑스가 낸 사람’이란 뜻의 이름답게 성인은 마음이 즐거우면 프랑스 말로 노래했다한다. 이 이름에는 ‘마음이 열린, 자유를 얻은, 대범 솔직한 (franc)’이라는 뜻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얼마나 걸맞은 이름이라! 성인의 전기를 쓴 첼라노가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듯이 성인은 “성령의 열의로 차 있을 때마다 언제나 프랑스 말로 열변을” 토하였고 “성체를 공경하는 프랑스를 사랑”하셨다지. “자신이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영예를 얻고 그들로부터 특별한 경의로 존경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거나 한 듯이” 말이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학자들이 프란치스코를 일찍이 기린 것 외에도 21세기 우리시대 프랑스 작가 보뱅은 1993년 프랑스 가톨릭 문학 대상과 ‘되마고’ 문학상을 받은 아름다운 산문집에서 ‘가장 낮은 자’(원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국역본 제목)를 노래하고 있다. 보뱅은 “음유시인처럼 가녀린 생명을 (지극한 사랑으로) 어루만진” 프란치스코를 무엇보다 ‘가장 낮은 자’로 정의한다:

“하느님을 지고자(至高者)라고 부르는 것도 성직자 계급의 군대식 위계질서를 끌어온 것이다. 그것은 이치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도들을 그리스도가 성급히 물리치고 대신 어린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실을 잊은 소치다. 어린아이의 위치까지 오른 하느님, 처음으로 코를 풀밭 속에 박은 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하느님, 이 ‘지극히 낮은 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극히 높은 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은 소치다.”(38-39)

“영혼은 오만함을 잃으면서 커간다. 성성은 성장의 법칙을 뒤집어 놓아, 여기서는 어른이 꽃이며 어린이가 열매다.”(40)

“진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속에 있다.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바래지 않는 기쁨이다(...) 성인은 진리를 말하기 무섭게 그 영광을 진짜 수취인에게 돌린다. 봉투 위에 주소를 기입해 넣듯 말이다.”(57, 75)



그런가 하면 그리스인이었지만 ‘성 프란치스코 전기’를 삶의 말년에 프랑스어로 집필한 카잔차키스(1883-1957)도 놀라운 작가적 상상력 속에 이 “영혼의 위대한 연인”(91)이자 “하느님의 작은 거지”(186)를 문학적으로 그려 낸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무지와 이제 불이 당긴 우리의 심장뿐”, 우리는 “하느님께로 갑니다. 무에서 하느님이 있는 곳까지 가면서 우리는 춤을 추고 울기도 하지요.” (206, 224)

“이 세상에 꽃들과 어린이들과 새들이 남아 있는 한 무서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226)



프란치스코 성인을 느껴보려 책을 뒤져보았지만, 그보다도, 현대매체 덕분에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함께 삼종기도 드릴 수도 있고 일반알현 교리교육 강론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생한 삶의 가르침에서 팔백년 전 옛 성인의 모습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어 기쁘다. 교황궁을 마다하시고 게스트 하우스 ‘산타 마르타의 집’에 나고 드는 다른 이들과 함께 거하시며, 주일 삼종 기도과 메시지를 발표하시는 당신의 발코니 바로 아래 행려자들을 위한 목욕소를 만들어주신 것

에 이어 빨래방도 개설해주신 “백성들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당신 특유의 ‘구유를 닮은 언어’로—첫 구유를 놓으신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 아니던가!—‘예수님의 살을 이루는 가난한 자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숙한 이미지와 단순한 어법으로, 최대한 정성을 다한 사랑의 대화를 들려주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고자 반포하신 놀라운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으로, 산타 마리아의 집 매일 미사 강론으로, 람페두사 섬 난민들 앞에서, 피렌체에서 45킬로미터 들어가는 산촌, 시골 본당 신부 로렌조 밀라니(1923-1967)의 무덤 순례 차 찾으신 오지 마을 강론에서….

정말이지 “프란치스코가 프란치스코에게” 성덕을 이어주는 듯한 우리 교황님과 동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안배 하심을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황님을 통하여 “주님의 성스러움을 비추는 가장 거룩한 거울”(첼라노, 40) 성 프란치스코를 더 가깝게 느끼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다시 시작해보련다. 부족함에 대한 자각을 낙망과 상실의 유혹에 넘기지 말고 우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자 마음 추스르며, ‘부족지족매유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
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
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재)천주교 끈벙뚜알 성프란치스코수도회

신한은행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민은행 : 295401-01-183491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은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 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 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 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 장 성당	오후 7:30	둘째 목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상황에 따라 후원회 미사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사 날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곧베평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계좌번호 : 신한 140-002-932457 / 국민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이사했습니다

성모기사회 본부 사무실이 경기도 양평 수도원에서 서울 혜화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을 비롯해서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전화 02-745-6134 (사무실)

팩스 02-745-6135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집에 오는 다른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2-745-6134) → 자동이체 신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회기 크게 성장한 북방 선교 후원회는 수도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총본부의 권고에 따라 한층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해외 선교 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사지가 여러 권 올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성모기사지가 선교후원회, 성모기사회, 성소후원회에 가입하신 모든 분에게 발송됩니다. 이로 인해 기사지를 여러 권 받으실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745-6134)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오전 10:30	일광 삼덕 공소	051-721-4709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이태영) 059-21-0614-385

농협 (이태영) 150017-51-045351

농협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317-0007-3146-21

우체국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102566-01-00549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Woori Bank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702-08-193616

Beneficiary(수취인) : Park Young Cheo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7년 9월 통권 488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황재민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준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곧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l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하늘과 땅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 찬미의 권고 5)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